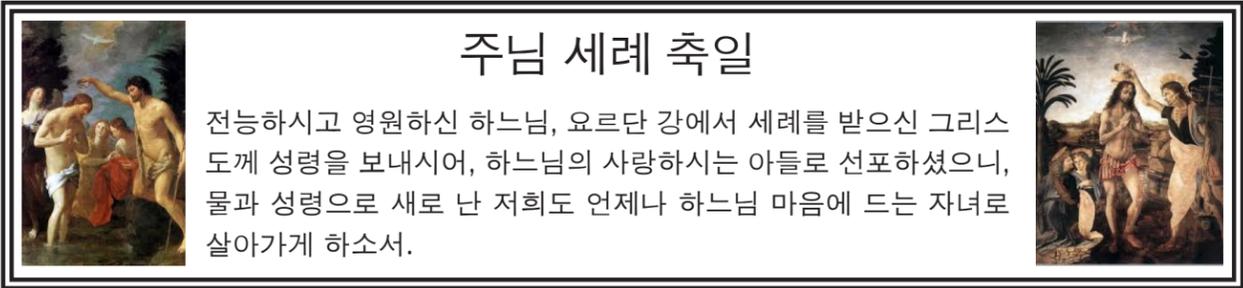


공동체 소식



주님 세례 축일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요르단 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그리스도께 성령을 보내시어, 하느님의 사랑하시는 아들로 선포하셨으니, 물과 성령으로 새로 난 저희도 언제나 하느님 마음에 드는 자녀로 살아가게 하소서.

1월 기도지향

- 캔사스 한인 공동체와 쉬는 교우를 위해

평협 및 단체장 발표

- \* 회장단 : 홍순익 마르티노(회장), 김태중 예레미아(부회장), 차호섭 요셉(재무)
\* 분과장 : 윤유나 글라라(구역부), 박혜정 카타리나(전례부), 정수한 베드로(선교부), 문석찬 요셉(시설부), 김병철 베네딕토(행사부), 이우영 가브리엘(교육부)

설 합동위령 미사

새해 명절을 맞이하여 우리에게 앞서 세상을 떠나신 조상님과 부모, 형제, 은인들의 영혼을 기억하며 합동 위령 미사를 봉헌합니다.
- 일시 : 1/26(일) 11시 중심미사

초 축복

“주님 봉헌 축일(2/2)”을 맞아 1년 동안 제대와 가정에서 사용할 초를 봉헌 받습니다. 각각 4불입니다.

평협 회의

- 일시 : 1/19(일) 오후 1시
- 장소 : 회관

기타

- 이번 주일(1/12), 지하실 공사 관계로 점심 애찬은 없습니다.
- 오늘(1/12), 전례부 회의가 있습니다.
- 총 11명이 견진성사 신청을 하셨습니다. 교리시간은 추후 공지.
- 2014년 공동체 달력이 나왔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더 가져가셔도 됩니다.

전례 성가

Table with 4 columns: 시 작, 예 목, 성 체, 마 침. Row 1: 1, 512, 163/496, 479

주일미사 복사

Table with 3 columns: 항목, 금주, 차주. Rows for 향 복사, 차호섭, 차서은, 고영방, 고평원, 시종 복사, 안광희, 김준영, 안광민, 안지영

전례 봉사자 및 독서자

Table with 3 columns: 해설자, 제1독서, 제2독서. Rows for 금주 (김명은), 차주 (최은미) with corresponding readers like 정준구, 박혜정, 정수한, 김주연

애찬 봉사자

Table with 2 columns: 금주, 차주. Items: 지하실 공사, 박혜정, 지은경, 김재은, 윤유아, 김경돌

현금 봉사자

Table with 2 columns: 금주, 차주. Items: 김태중(예레미아), 정수한(베드로), 백문주(엘리사벳), 박희영(카타리나)

우리들의 정성

Table with 4 columns: 참여인원, 현금, 교무금. Row 1: 1/5, 78명, 403불, 1,500불. Note: 김정원, 김화년, 김태중, 이영민, 안동현, 김정환, 전영민(총 7세대)

주님 세례 축일

“보이는 것은 잠시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2코린 4,18-

2014년 1월 12일

미사시간
주 일: 11:00 AM
화요일: 7:00 PM
목요일: 10:00 AM
고해성사
매 미사 30분전
예비자교리
주일 10:00 A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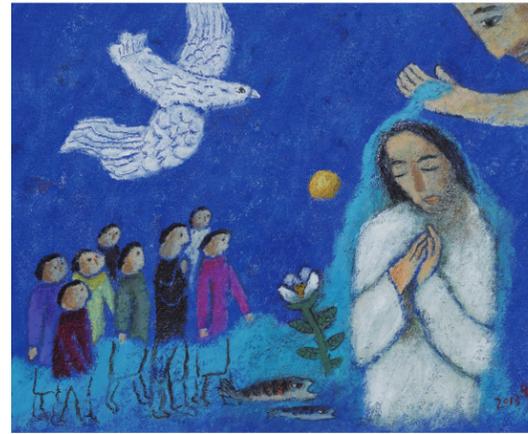
캔사스 한인 천주교회

Korean Catholic Community of Kansas
9130 Pflumm Rd. Lenexa, KS 66215
(913)563-7896 www.kckcatholic.org

주보 편집 : 김원철 바실리오 412.576.5075 willkim777@gmail.com

주임신부 주영길 토마스
M: 913.633.1273
jooyk88@gmail.com
회장 홍순익 마르티노
M: 913.486.4204
부회장 김태중 예레미아
M: 913.963.7521
재무 차호섭 요셉
M: 614.598.7908
hscha72@gmail.com

오늘의 전례



오늘은 주님 세례 축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부에 대한 순종과 예언의 성취를 위해 겸손하게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십니다. 이러한 예수님께 성부 하느님께서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순종으로 우리 역시 주님의 세례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구원의 세례에 감사드리며 하느님의 자녀로서의 진정한 품위에 걸맞은 삶을 살아갈 은총을 청합니다.

성화해설

예수의 세례, 우리의 세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셨다. 그때 그분께 하늘이 열렸다. 그분께서는 하느님의 영이 비둘기처럼 당신 위로 내려오시는 것을 보셨다.” (마태 3,16)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심으로써 세례의 물이 세상을 성화시키고 그리스도 안에서 세례 받는 모든 사람은 하느님 백성으로 새롭게 태어납니다.

그림 김옥순 수녀 | 성바오로딸수도회

제 1 독서 : 이사 42,1-4.6-7 < 여기에 나의 종이 있다. 그는 내 마음에 드는 이다. >



- ◎ 주님 - 당신 백성에게 평화의 복을 주시리라 -
○ 하느님의 아들들아, 주님께 바쳐라. 주님께 그 이름의 영광드리며, 거룩한 차림하고 주님께 조배 드러라. ◎
○ 주님의 소리는 물들 위에 많고, 많은 물 위에 주님께서 계시다. 주님의 소리는 우렁차시다. 주님의 소리는 장엄도 하다. ◎
○ 엄위의 하느님께서 우렛소리 내시니, 창생들이 그 성전에서 영광이여 하도다. 주님께서 큰 물 위에 앉아 계시다. 주님께서 영원토록 왕으로 앉아 계시다. ◎

제 2 독서 : 사도 10,34-38 < 하느님께서 예수님께 성령을 부어 주셨습니다. >

- 복음환호송 : ◎ 알렐루야.
○ 하늘이 열리고 하느님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왔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

복음 : 마태 3,13-17 <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께서 하느님의 영이 당신 위로 내려오시는 것을 보셨다. >

# 쉐 마

## “하늘에서 들려 온 소리”



세례식 때가 기억나십니까? 아쉽게도 저는 어려서 세례를 받아 기억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면에서 좋으시겠습니다. 나이 서른에 당신이 직접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달라고 말씀하셨고, 생생한 소리도 들으셨으니까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세례식 중에 또는 세례식이 끝나고 어떤 소리를 들으셨습니까?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딸, 내 마음에 드는 아들/딸이다.”와 비슷한 소리를 들으셨습니까?

저는 기억이 없기 때문에 소리도 이미지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참 안 됐습니다. 다행인 것은 제가 대학생이었을 때도 복사를 설 기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다닌 학교에는 성당이 있었고, 복사단에서 활동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년 두 번의 세례식 때 복사를 썼습니다. 대학교 성당이다 보니 세례를 준비하는 예비 신자들이 모두 성인이었습니다. 1년 동안 교리를 듣고 준비하여 세례를 받습니다. 저는 교리반 도우미, 미사 복사를 하면서 이 과정을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저야 선택의 여지없이 어렸을 때 세례를 받고 주일 아침마다 성당을 나가는 것이 당연했는데, 이 젊은 사람들은 왜 주일 아침을 반납하는 이런 일을 스스로 하려 하는 것일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세례식 복사를 서면서 세례자들이 감동받아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저는 그들 곁에서 아무런 감동 없이 전례 순서를 잘 따라서 세례식이 자연스러울 수 있도록 복사 역할에만 신경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례자들은 세례식을 통해 정말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만 같았습니다. 눈물이 증거일 수 있겠지요. 많은 사람들의 축하도 새로 태어남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아마도 그 세례자들은 어떤 소리를 들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그들이 듣고 싶었던 소리였을 수도 있겠고, 아니면 뜻밖의 소리였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대학생 시절에 수녀님께 부탁을 드렸습니다. 저도 다시 세례 받게 해 주세요! 세례자들이 들었던 소리, 느꼈던 감동을 체험해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세례를 받고 가톨릭 신자가 되면서 우리는 꽤 많이 변했습니다. 우선 매주일 아침 혹은 저녁에 성당에 갑니다. 그전에는 자거나 놀러 가거나 일을 하기도 하고, 또 뭐 그냥 보냈던 시간이었습니다. 이제는 성당에 가서 성가를 부르고, 죄를 고백하고, 말씀을 듣고, 예수님과 일치하는

영성체를 합니다. 이 얼마나 큰 변화입니까!

또 우리는 기도를 합니다. 세례를 준비하면서 시작했던 기도를 계속해서 해 나갑니다. 그전에 몰랐던 목주기도를 합니다. 목주반지가 예쁘게만 보였었는데 지금은 반지를 돌리며 성모송을 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을 위해, 자식을 위해, 친구를 위해, 나라를 위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우리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나 자신만 챙겼었는데 이제는 이웃을 돌아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 모습을 하느님께서 보시고, “내 마음에 드는 아들/딸이다.”라고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세례 후에 매일같이 이 하늘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들려온 소리에 이끌려 우리가 행동하기도 하고, 우리의 삶을 하느님께서 보시고 우리 각자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아들아, 참 이쁘다. 딸아, 참 잘한다.” 세례를 통해 우리는 엄청난 것을 받고 있습니다. 하느님의 목소리를 듣고 있고, 하느님의 사랑과 은총으로 힘든 하루를 살아내고 있습니다. 세례 전에 우리는 몰랐습니다. 하느님께서 계신지? 왜 내 삶은 힘들기만 한지? 세례 때의 은총, 들었던 소리가 알려줍니다. 나의 어둡고 힘들어 보이기만 하는 이 구질구질한 생활 곳곳에 하느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이제 압니다. 그래서 더 힘차게 외칩니다. 저는 세례를 받고 지금 이렇게 하느님 당신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제 기도를 들어주세요.

예수님께서서는 세례를 받고 광야로 나가셔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세례를 받은 우리는 예수님처럼 설 새 없이 기도를 합니다. 기쁨 때 감사의 기도를 합니다. 힘들 때 청원의 기도를 합니다. 우리는 세례를 통해 기도란 것을 알게 되었고, 하느님 아버지께 우리의 소리를 전합니다. 우리 마음의 소리를 하느님께서 들으시고, 우리 마음에 당신의 소리를 심어주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늘에서 들려온 소리를 품고 오늘 하루 또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를 돌봐주소서.”

- 김동일 신부(예수회) -

# 마중물

## 찰스 쉬왓의 충고

철강업계의 대표적 인물인 찰스 쉬왓이 어느 날 자신이 관리하고 있던 제련소를 순찰할 때의 일이다. 그는 가끔씩 공장의 기계들이 제대로 돌아가는지, 직원들은 일을 잘하고 있는지 돌아보곤 했는데, 그날 공장을 돌다가 한쪽 공터에 삼삼오오 모여 있는 직원들을 발견했다. 마침 쉬는 시간이었다.

그런데 담배를 피우며 잡담을 나누고 있는 직원들 곁으로 발을 옮기다 보니 빨간 글씨로 쓰여진 “금연”이라는 표지판이 눈에 띄었다. 순간 그는 화가 치밀었다. 금연 표지판 아래서 아무렇지도 않게 담배를 피우고 있는 직원들이 꽤 씩씩해 당장 달려가서 “글자도 못 읽는가”하고 크게 소리치고 싶었다. 하지만 그는 마음을 진정한 뒤 천천히 그들 곁으로 다가갔다.

쉬왓이 다가서자 담배를 피우고 있던 직원들은 잠시 몸을 움찔거리더니 조심스럽게 서로의 눈치를 살폈다. 그때 그가 먼저 친근하게 말을 건넸다. “오늘은 날씨가 참 좋군. 그래, 요즘 일은 할 만한가? 혹 불편함은 없

는지?” 그러나 직원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도 그는 금연 표지판 아래서 담배를 피운 일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 한참 뒤 다정하게 이야기를 나누던 쉬왓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다. “앞으로 어려움이나 고충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내게 말해 주게나.”

그리곤 자신의 안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내더니 직원들에게 하나씩 나눠 주는 것이었다. 담배를 받아 든 직원들이 어리둥절해 하자 그가 눈을 한번 찡긋하면서 덧붙였다. “앞으로는 이 시기를 금연 표지판이 없는 곳에서 피워 주면 고맙겠네.” 빙긋 웃으며 자리를 뜨는 그의 뒷모습을 보고 직원들은 부끄럽고 무안한 마음에 얼굴이 달아올랐다. ‘모범은 사람을 이끄는 최선의 방법이 아니라 유일한 방법이다.’

# ‘신앙의 해’교육자료

## 제 8절 성령을 믿ना이다.



### 71. 성령의 상징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성령의 상징으로는 ‘물’, ‘기름부름’, ‘불’ 등이 있습니다. 그 의미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물. 물은 세례에서 성령의 활동을 상징합니다. 왜냐하면 성령 청원기도 후에, 물은 새로운 탄생을 나타내는 유효한 성사적 표징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첫 탄생을 위한 잉태가 물속에서 이루어지듯이, 세례수는 하느님 생명으로 다시 나는 우리의 탄생이 성령 안에서 주어진다 것을 실제적으로 의미합니다.

2) 기름부음. 기름부음도 성령을 상징합니다. 성령과 기름부음은 동의어로 쓰일 정도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세워지셨습니다. 동정 마리아는 성령으로 그리스도를 잉태하고, 성령께서는 그분의 탄생 때 천사를 통해 그분을 그리스도라고 알리시며, 시메온을 성전으로 이끌어 주님의 그리스도를 만나 뵈게 하십니다. 성령께서는 그리스도를 가득 채우시고, 성령의 힘은 그리스도의 치유와 구원의 행위들 안에서 드러냅니다.

3) 불. 물이 성령 안에서 주어지는 ‘생명’의 탄생과 풍요를 가리킨다면, 불은 성령의 활동이 지닌 변화시키는 힘을 상징합니다. 세례자 요한은 그리스도께서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루카 3,16) 분이심을 선포합니다. 성령께서는 오순절 아침 “불꽃” 모양으로 갈라져 제자들 위에 내려와 그들의 마음을 채우십니다. 영성적 전통은 이 불이 성령의 활동을 가장 잘 표현하는 상징의 하나로 간직해 왔습니다.

- 『저는 믿나이다』, 청주교구 복음화 연구소, 2012 -